

고은 불교 대하소설

윤회의 발전에 의해서 도달하는 수미산이야말로 구도자의 궁극일 터이나 궁극까지도 다 무너지리라



59

이 간 소설은 조선 후기의 한 병랑승 인담의 기연(奇緣)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는 분명한 조선시대의 사림이면서 어느날 꿈에 나타난 고려의 선승 담인을 스승으로 삼아 그의 제자가 된다.

스승과 제자는 시공을 초월한 것이다. 그런데 그 스승 담인의 본부를 꿈속에서 받은 인담은 경기도 북부의 한 신악 암굴에 찾아가 그 암굴에 비장되어 있는 '서해문집'이라는 서적을 찾아낸다.

그것은 바로 고려의 불우한 천재시인 임춘의 것이다. 그러나 임춘은 그가 죽은 뒤로도 말쑥년동간 그의 시문(詩文)이 세상에 알려지지 못하고 다른 시인들을 통해서 겨우 몇편만이 알려졌을 뿐이었다.

지금까지의 줄거리

바로 이 시인의 문집을 스승에 의해서 찾아낸 인담은 그동안의 호서지방 방랑을 끝내고 서해안의 한 무인도인 무욕도에 건너가게 된다.

그가 이곳으로 오게되는 과정에서 팔려 가는 여자를 구해서 그 여자와 함께 무욕도의 도량을 개척한다.

남녀가 한 삶에서 삶을 꾸려나가는 일은 곧 부부가 되는 것을 뜻하였는데 그들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두 사람은 철저히 이성간의 차별을 넘어 하나의 도반(道伴)으로서 수행을 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만화 남작 무전 파현 수원 수월 그리고 임춘의 후산인 불이들이 무욕도에 합류한다. 이들은 남자들이다. 그래서인지 합류하는 아름다운 과부가 이 무욕도 도량의 식구가 되어 인담이 처음에 데려온 우녀와 함께 두사람의 여자로 되는 것이다.

이들은 출가자의 신분이 되었으므로 차츰 그들 자신들의 규범을 이루어가며 사바한 수행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육지에서 이들의 수행을 돕는 재가자들이 생겨났다. 곧 이 견줄 수 있다면 2천5백년전의 사가 원 시교단의 그것과도 일치하고 있다.

무욕도는 오랫동안 그 일대의 해류가 거칠기 때문에 사람이 살지 않았을 뿐인데 그곳에는 사람들이 마실 샘물이 있었고 무엇보다 숲이 울창해서 활강도 넉넉한 편이었다.

그곳에서의 수행은 점점 본격적으로 되었다. 특히 우녀는 불탑에도 인담을 능가하는 것 같은 영감(靈感)에 차 있는 지혜를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힘이 한창이던 무렵 이윽고 무욕도는 하나의 결사(結社)를 이루어 간화(禪話)와 묵주(默誦)에 구애받지 않는 공부를 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혹은 난파선의 어부로서 혹은 해안의 물에서 하나하나 이곳에서의 삶에 가세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러나 아직 대중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개성을 놓이지 못한 상태이므로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 뿐 아니라 무욕도의 공인과 그들이 품고 있는 마음의 공간이 합치되지 않을 때 그곳을 떠나려는 생각들이 고개를 들기도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지장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그렇다 그 생각이 가라앉은 뒤 전혀 다른 것으로 발전해서 사람들의 커다란 포부도 되는 것이다. 그 포부는 각각의 업(業)에 따라 다채로운 것으로 된다.

무욕도 도량은 온종 파도소리와 바다냄새로 이루어진 곳이다. 아니 그곳은 하나의 커다란 배처럼 바다 가운데 떠있는 섬이다.

그렇다면 이 바다에서 살고 있는 갈매기들이나 바다 밑의 고기를 그리고 바다 위의 수많은 높고 낮은 파도들도 처리리 이 무욕도의 대중들인지 모른다.

이같은 사실은 선대(禪代) 산중에 있다는 봉남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좀 낯선 것이기도 하지만 굳이 말하자면 서산 간월암(看月庵)을 소설 속에서 변화시킨 바다의 도량인 것이다. 이를테면 그 간월암의 만공(滿空)선사를 복수(復讐)함으로써 새로운 구도(求道)의 가능성으로 삼은 것이다.

이런 공부로 이곳 사람들이 일정한 경지를 얻은 뒤의 자유로서 저마다의 포부를 실현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갈등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그 자신의 선택일 따름이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선택한 사람에게 부딪친 사건에 의해서만 실현된다. 이를테면

이 아니라 이승으로서의 다른 지역, 즉 육지로 건너가는 것이었다.

그러하여 각각 건너간 그들은 어느만큼 가서 극적으로 만나지만 또한 그들의 운명에 따라 어느 지역에서는 서로 헤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자 무욕도는 인담과 우녀 정도로 남아있어야 하였다. 파도소리가 한층 더 힘을 내고 있었다.

그리하여 무욕도의 수행자들은 저마다의 세상을 그들 자신의 발원과 업보에 의해서 편력하는 것이다.

그것은 지옥계라 하더라도 인간계의 지상 지옥을 무대로 삼는가 하면 이승을 떠나는 형식을 이승의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바꾸는 자유분방한 행로(行路)를 제시할 때와도 비슷하게 된다.

그래서 이승을 떠나는 자들이나 곧 떠날지도 모르는 무욕도의 진존인물들과 함께

그렇다면 인담 우녀까지도 인간으로서의 구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윤행과도 같은 아니 외계인파도 같은 존재의 유연한 움직임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확인시켜 줄지도 모른다.

말하자면 이 소설 1백회 이상의 절반에 이르러가는 바로 수미산의 우주로 승화되기 위한 하나의 형이상학적인 현실이었다.

이같은 형이상학은 서구 기독교문학의 전형으로 본다면 매우 단편적(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것은 '신곡(神曲)'의 단순한 구도와는 처음부터 어긋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장차의 인담 우녀 만화 남작 합두 무전 파현 수원 수원 불이 그리고 그밖의 인물들이 다 현실로부터 유리된 것은 아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인도, 중국 한반도 등의 역대 조사들의 사적(私的)인 발언들이 전혀 다른 것으로 대체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수미산을 지향한다 한들 그 사람은 사바세계의 한 군데인 무욕도이기 때문이다.

바로 다음 회로 이어지는 것이 불이와 합두의 아귀계에서 일어나는 애욕의 불연애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며 이야기는 새로운 차원을 요청할 것이 틀림없다.

이때까지의 윤행정진을 계속한 무욕도가 없어지는 대신 윤회 지체를 일삼았던 장건의 도량으로 삼고 그 윤회의 발전에 의해서 도달하는 수미산이야말로 구도자의 궁극일 터이다.

그러나 그 궁극까지도 다 무너지리라.



무욕도의 수행자들은 저마다의 세상을 그들 자신의 발원과 업보에 의해서 편력 하고 있다

무욕도에서 맨먼저 떠나는 사람이 무전인데 그는 죽은 뒤에 그가 가고 싶었던 곳에 갈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사실은 생사를 그 자체만으로 해석하지 않고 생사를 무한한 수행의 과정으로 파악하는 데서 그 의미가 있다.

그러하여 무전이 죽은 뒤 다른 세상의 중생으로 태어난다. 심지어 그는 고기 속의 내장에 박혀있는 벌레가 되기까지 한다.

그러기하면 만화는 생전의 그 성정(性情)과는 달리 대변에 천상계에 태어나 도

로 지옥 중생이 되어 지옥의 여러 고통을 받게 시작한다.

또한 임춘의 후신담계 무욕도에서는 가장 박식한 불이와 미모의 합두는 불이 한 게 이수라게로 가려는 포부와는 달리 그들의 업질(業質)에 따라 이르게도 멀어지는 것이다.

수원 역시 이승의 무욕도를 단호하게 하직해 버린다.

그런데 수월과 파현은 그들이 살고있는 도량에서 다른 세상으로 가서 태어나는 것

바로 이러한 무욕도 도량의 시절도 장차 사라질지 모르는 징후가 있었다. 그것은 서산담의 한 어린 계집아이가 상들란 듯이 곧 세상이 불길에 덮인다는 말을 하는 것이었다. 어린이의 발언치고는 성숙했다.

그 것이 아니라도 성·주·과·공(成·住·壞·空)의 이차에 의해 하나의 삶이 어떤 자각운동에 의해 살아날 수도 있고 영영 불속 깊이 가라앉아 사라질 수도 있다. 아니 화산으로 폭발해서 파괴될 수도 있다.

이같은 자연의 체계에 의존해서 인류의 삶이 등장한 것이므로 이런 운동이 뒤늦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이 아닌가.

이 소설은 소설 제목 그대로 수미산의 세계를 그 무대로 삼는다. 그것은 사바세계 남심부주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한 군데 역시 크게 보아 수미산의 한 부분인 것을 뜻한다.

'구사론(俱舍論)'을 소승불교의 한 이론이라고 구분하는 것을 떠나서 이미 화엄경에도 다른 대승경전의 여기저기에도 심지어 선종에서도 수미산은 언제나 떠올리지 않으면 안되는 세계인 것이다.

이미 이승을 떠나서 다른 세상의 6도(六道)를 윤회하는 그 전생(轉生)의 수고를 통해서 우주의 공간을 확대하는 일이 이 소설의 부분적인 의의이기도 하다.

엄밀히 말해서 이 소설은 어느 소설형식과 다르다. 소설의 구도가 미리 짜여진 것이 아니라 등장인물들의 수식적(數學的)인 행위가 곧 소설을 이끌고 가는 것으로 되고 있다.

또한 이 소설에는 고정된 주인공이 없다. 주인공이 있을진대 그것은 궁극적으로 수미산 자체이다. 하지만 이제까지는 수미산 자체의 위용(偉容)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것은 각 인물들이 하나하나 갖가지 시련과 고통 그리고 환희로 뒤범벅이 된 구도의 길을 걸어서 수미산 밑에 도달해야만 구체화될 것이다. 그러기 전까지는 아직 수미산은 구름조차도 녹아버린 추상일 따름이다.

이제 무욕도에 남은 사람들이 무욕도의 최후와 함께 다른 세상을 향하게 되면 이 소설은 사바세계의 현실로부터 떠남으로써 하나의 무형(無形)의 심식(心識)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조항숙

생활 속의 불교 50

무지개는 본래 일곱 색깔이 아니다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는 일곱 가지 색깔을 띤다. 햇빛이 공기 중의 물방울을 통과하면서 일곱 가지 색깔로 나뉘어져 하늘에 수를 놓는 것이 무지개이다. 빛이 프리즘과 같은 분광(分光) 장치를 통과하면 똑같이 선명한 일곱색으로 나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색을 일곱 가지로 받아 들인다. 그러나 빛은 일곱 색이 아니다. 다만 사람의 눈에 일곱 색으로 보일 뿐이다.

사람의 눈은 적외선, 자외선을 볼 수 없다. 또 너무 가까운 것, 너무 먼 것도 볼 수 없다. 귀 또한 마찬가지이다. 일정한 영역에 속하는 소리만 들을 수 있다. 소리의 파장이 아주 길거나 짧을 경우 사람들은 소리를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코끼리는 자기들끼리만 알아 듣는 저음을 잘 알고 박쥐는 또 기계장치보다도 포착 가능한 극초단파로 통신을 한다.

따지고 보면 사람이 오관을 통해 감지하는 바깥 세상의 모습은 그 전부 아니라 한 귀퉁이에 불과하다. 빛의 극히 일부분만을 볼 수 있고 소리의 일부분만을 들을 수 있다. 냄새·맛·감촉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우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보았다고 하는 것, 내 두 귀로 분명히 들었노라고 하는 것이 실은 참이 아니다. 그러니 오관을 통해 주위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의식의 작용이라는 것도 따져 보면 왜곡된 것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평생을 두고 받게 되는 교육이라는 것도 그렇다. 독립된 한 인간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많은 양의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그 내용을 엄밀히 따져보면 진리, 또는 그에 가까운 것보다는 왜곡된 것이 대부분이다. 중·고등학교 말하면 교육이란 이 세상의 실체를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나'로서 살아가기 위한 생존의 방법·부쟁의 방법을 배우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문명의 눈부신 발달에도 불구하고 갈등·분쟁·폭력·범죄·전쟁 따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게 되는 것이다.

진리라는 측면, 궁극적인 실체의 입장에 서면 인간은 '가짜'라는 이름의 산을 밟고 '가짜'라는 이름의 종교에 빠져 사는 셈이다. 귀머거리, 장님이나 다름 없고 고쳐해야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불법은 진정한 눈뜸, 귀 열림을 그토록 강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깨달음의 자리에서 인간을 바라보면 누구나 통 속에 갇혀 살고 온산철벽에 둘러싸인 풀이나 어찌 애용해하지 않겠는가.

'나'를 알세우는 한은 보고 듣는 것이 모두 가짜요, 배우는 것도 모두

가짜이다. 사랑한다는 것도 가짜 사랑이요, 배움고 나눈다는 것도 가짜 배움이다.

그러기에 불법에서는 눈 없는 눈으로 보고 귀 없는 귀로 들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무무상의 삶이야 비로소 천리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말한다. '나'가 빠져야 바로 볼 수 있고 바로 들을 수 있으며 바른 배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한, 깨달음에 이르러야 하는 한 '나를 죽이는 일'—아상·아만·자존자대·자기 사랑을 범하는 일만이 진정으로 배우고 노력해야 할 우리의 목표인 것이다.

무지개는 본래 일곱 색이 아니다.

협찬: 정진이